

성철 스님 봉헌관 준공

해월정사에 친필 봉안

성철 스님의 가르침과 삶의 흔적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이 문을 열었다.

부산 해운대 청사포의 해월정사(주지 천제)는 10월 19일 성철 스님 열반 15주기 추모법회를 맞아 봉헌관 준공식을 봉행했다.

성철 스님 기념관인 봉헌관은 총 3층 360㎡ 규모로 1층 깎다실과 홍보실, 공양간, 2층 선방, 3층은 시월전으로 성철 스님의 친필 500여 점이 봉안돼 있다.

이 친필은 모두 성철 스님이 생전에 기록한 법문 초안원고나 메모, 공주규약 초안, 경전풀이 등을 일력이나 편지 등 쓴 것을 모은 것으로 한국 현대불교사의 귀중한 사료가 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일부 개장 이후 전면 개관은 처음이다.

주지 천제 스님은 "봉헌관의 건립은 오랜 숙원으로 스승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널리 알리는 길"이라며 "은사님의 친필을 이곳에 봉안하면서 이곳이 향후 한국불교사에 한 획을 그는 성지로 자리매김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개산대재 절 잔치서 지역 축제로

"문화축제로 키우겠다" 한 목소리

부산경남에서 9월 말부터 잇달아 열린 두 교구본사의 개산대재가 단순한 '우리 절 잔치'를 넘어 지역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개산 1330년을 맞은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9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8일간 금정체육공원과 범어사 일원에서 '2008 금어문화축제'를 열었다.

"하늘과고기, 세상을 금빛으로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마련한 이번 행사는 불교행사만 즐비했던 기존 개산대재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일간 매일 다른 주제로 금어프린트, 금샘 야간산행, 현공집단지 시연, 스님 장기자랑, 가족 매직쇼, 재즈콘서트, 천연염색, 금어등 만들기, 시민 노래자랑, 사생대회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 참여행사가 주를 이뤘다.

주지 정여 스님은 "개산대재는

불자만의 축제가 아닌 금정의 자람이자 부산 대표 축제, 아름다운 문화와 향토미를 담은 축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도 10월 3~7일 5일간 창건 1363주년 개산문화대재를 열었다. 이번 축제는 사생대회, 뮤지컬 맘마미아, 부경대학교 협약서 조인식, 지역 우수 공무원 금일봉 전달, 이주외국인 초청잔치 한마당, 지역 문화발전 감사패 전달 등이 열려 지역민이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행사로 채워졌다.

주지 정우 스님은 "이번 개산문화대재는 소외된 이웃과 양산 시민이 손잡고 문화 예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푸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라며 기획했다"며 "오직 불교만이 가질 수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계승해 양산의 통도사가 아니라 세계의 통도사로 전통문화 집합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hdbp@hanmail.net



범어사 개산대재에서 마련된 체험장에서 컵등을 만드는 외국인들(사진 위). 지역 우수 공무원 금일봉 전달을 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마련한 통도사.



범어사 개산대재에서 마련된 체험장에서 컵등을 만드는 외국인들(사진 위). 지역 우수 공무원 금일봉 전달을 하며 지역민과 함께 하는 축제를 마련한 통도사.

대형당 지원 스님 입적

범어사 최초 비구니 대비

비구니계의 큰 어른으로 비구니 최고 품계 '명사(明師)' 품계를 받은 대형당 지원 스님이 10월 5일 오전 부산 동래구 사직동 보림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78세, 법랍 53세.

영결식은 8일 오전 8시 30분 보림사에서 봉행하고,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 금정산 범어사 연화대에서 대비식을 거행했다.

특히 범어사 연화대는 비구스님만을 대비해왔으나 이번 지원 명사 원적으로 비구니스님 대비를 최초로 시행했다. 장례는 부산불교연합회장으로 치러졌다.

지원 스님은 1962년 보림사 주지 취임, 1976년 부산 비구니금련회 조직 초대 회장 역임, 1987년 경복경주시 비구니 수도원 금련사를 창건했다.

박지원 기자

"다음 생에는 성불하렘"

미타선원 자갈치축제서 물고기 위령천도재

부산의 대표 수산물 시장 자갈치 시장에서 10월 8일부터 닷새간 펼쳐진 자갈치 축제의 일환으로 물고기 위령천도 영산대재가 열렸다.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10월 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자갈치 축제 본무대에서 물고기 위령천도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인간의 먹거리와 생업을 위해 희생된 물고기들의 넋을 달래는 의식이 2시간 가량 이어졌다.

이번 천도재는 매일 물고기를 다루는 자갈치시장의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해 희생된 물고기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물고기 위패를 올리고 분향했다.



물고기 넋 위로하는 '물고기 위령천도 영산대재'가 자갈치축제 기간인 10월 8일 자갈치축제 본무대에서 열렸다.

미타선원과 불모산영산재보존회(경상남도무형문화재 제22호) 스님들의 집전으로 우리 민족문화예술의 정수이며, 장엄한 불교의식 영산대재가 장엄하게 펼쳐졌다. 모든 수익금은 난치병 어린이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참선수행으로 중생 이롭게"

벽송사 중창불사 회향



함양 벽송사 중창불사 회향식이 10월 5일 봉행됐다.

선교결수의 전통을 되살린 한국간화선의 근분도량 벽송사(선원장 월암)의 중창불사가 원만회향했다.

10월 5일 오후 1시 벽송사 앞마당에서 스님 30여 명과 신도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창 회향식을 가졌다.

이번 회향식에서는 해인사 원웅 스님 축사,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혜국 스님 특별 법문, 前 수좌회회장 영진 스님 격려사가 이어졌다.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불법이 다시 이 땅에 꽃 피게 하는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이 자리 스님들이

증명했다"며 회향을 축하했다.

선원장 월암 스님은 "이곳 벽송사에서 수많은 선조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듯 참여하신 스님들도 참선수행을 통해 지혜를 발현해 불성을 깨달아 부처를 이루고 자비를 닦아 중생을 이롭게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기자

전국승가학인대회 열려

전국승가학인연합회 주최는 10월 9~10일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에서 전국승가학인대회를 열었다.

학인대회는 1년동안 연마한 기예를 발표하고 우의를 다지며 화합을 도모하는 축제 한마당이다.

첫날에는 역경대회와 불교 전통의식·문화 경연대회가 열렸다. 경연대회는 역경·서도, 법교·장불, 법문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둘째 날은 추구와 배드민턴 대회 등이 열리고 회향했다. 박지원 기자

불국도를 찾아서

사단법인 부산차문화진흥연구원

"전통다도 복원·새 다법 개발 진력"

새하얀 한복, 정갈한 소매 깃 아래로 소중한 분을 위해 차를 담아내는 손놀림에 예인의 멋스러움이 묻어났고, 은근한 차향은 가을 산사를 가득 메웠다.

'하나 땀을 위하여'를 주제로 한 색다른 현공집단지 시연이 범어사 금정문화축제에서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사)한국차문화진흥연구회가 기획부터 총 연출을 맡았다. 행사가 끝난 후 주

산 4대 차인 고종세미나, 누리마루 달빛차회, 한중일 차체험마당, 다법시연 및 24차회 무료차시음회 등을 마련해 이틀간 8000여 관람객이 다녀갔다.

이경순 원장은 "부산 4대 차인으로 금강 최규용, 목촌 구혜경, 원광 스님, 다촌 정상구 등을 소개하는 등 부산의 차문화를 한자리에 집대성시키고, 성장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 후에도 제3차, 4차 국제차어울림문화제 및 워크숍, 동례 의총한다례 및 답청



몸·마음 정리하는 멈춤 담은 다법 선보여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색다른 다법을 발명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이경순 원장은 "다도 시연은 흔하지만 현공과 집단지예를 동시에 진행하고 시연이 끝난 후 찻잔과 찻상 등을 정리하던 부산스러움을 보자기로 깔끔하게 감싸게 하는 등 '하나됨'을 나타내는 새로운 다법을 무대에 올리고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만족스러워했다.

2006년 8월, 사단법인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는 김순홍 조각보박물관장을 초대 회장으로 현재 약 110여 명의 회원이 뜻을 모아 지금까지 부산지역 차 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

30대부터 60대 불자는 물론, 차나 다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는 회원까지 그야말로 차 애호가들의 오랜 동반인 셈이다.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는 창립 후 처음 가진 '2006 제2차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의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으로 한국의 차명장 전시, 부

놀이 등에 참여하면서 부산지역 수많은 다도회를 아우르는 대표 차문화연구 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의 다례 시연을 만나볼 기회가 또 한번 마련된다.

10월 23~26일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3회 부산 국제 차, 공예박람회'에서 '모심의 정성으로'를 주제로 범어사에서 처음 선보였던 현공과 집단지예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보자기로 몸과 마음을 정리하는 멈춤의 의미를 담아낸 새로운 다법을 세계 무대에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이경순 원장은 "다도는 부드러운 대화를 이끄는 훌륭한 방편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쉽고 편안한 문화"라며 "공허한 마음을 잡아줄 뿌리가 될 정신문화의 근간으로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차문화를 복원하고 있는 것은 정신문화를 살찌우는 길이 자 우리의 책임이다.

박지원 기자

한국의 민중의술계에서 신화 같은 기적을 일으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스님은 누구인가?

칠대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 이겨 13세부터 육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8세가 된 이 시간 까지도 인간은 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떠날 수 있는 길은 없을가 하는 일념으로 정신수련 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에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 어떻게 하나 1.2.3권 저자 전 울산 지방법원 황궁국 부장판사가 현직에 있으면서 민중의술신문 2006년 12월 7일 10면과 11면, 2007년 1월 31일자 8면과 9면에 민중의술 명의열전 "김영생과 천의선도" 천의선도는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다 라는 제목으로 안내되었던 천의선도 창도자 김영생 대한신불교천우종 포교원장 삼봉(三奉)승이 대덕고승님 앞에 감히 권유의 말씀 올립니다.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달래주고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며 부처님 뜻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하자고 말입니다. 천의선도는 전수받은 순간부터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를 촉감으로 느껴볼 수 있으며 시험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0년 두통 환자가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려 나갑니다. 당신의 머리 백회를 통하여 하늘의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가슴에 시들던 초목이 이슬비 맞으면 싱싱해 지듯이 모든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천의선도 수련을 몇 시간 계속하면 당신의 손이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자석의 당기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손이 오르라 들면서 이 신비속에 접어들지

않는 마간이 지나면 감기를 들었을 때 콧물이 주르륵 흐르는 느낌이 들고 나면 수련자는 무아상태에 들어갑니다. 앞이마 안쪽에서 물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삼매경에 들게 됩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30여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차는데 삼키면 또 차고 삼키면 또 차는데 천상영계선이 이 침을 생명의 감로수라 하고 현대의학으로 보면 엔돌핀입니다. 엔돌핀이 분비되지 얼마간이 지나면 희열의 환희속에 접어들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건지 나의 의무와 사명감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서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물핀의 2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치유능력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모든 병의 원소가 소멸되고 병든세포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이 영계의 메시지인데 천의선도를 17년간 전수시키다 보니 낳으면서부터 뇌성 마비로 손발이 뒤틀린 20대 여성이 수련 2년만에 정상으로 회복되고 현대 의학계에서 포기한 뇌종양환자 간암환자 식도암환자 폐암환자 재생불능성 빈혈환자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10여년이 넘도록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중풍으로 5년간 누워 계셨던 한의학 박사님이 수련 5개월만에 정상으로 회복되어 의료업에 종사하고 30년 두통환자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견비통 위하수 이명증 생리통 요실금 전간(간질병) 전립선 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수련시키면서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2.3차 주입시켜 주었더니 신화같은 기적으로 회복된 분이 3000여명이 넘는 체험을 해 봤는데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대덕고승님 제 나이가 78세입니다. 이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정시

킬 수가 없어 내 의식이 생생할 때 천하제일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전 인류에 봉사하며 살자고 이 글을 올립니다. 이 치료법은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하늘의 의술입니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염려도 없지 않나 스님들에게만 안내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노승을 시험해 보시고 믿어지거든 고정관념 활활 털어버리고 종파를 초월해서 노승을 찾아 주시면 천의선도 전수식부터 조상천도식 기적의치료법 선단제조법까지 3박4일이면 천하제일의 명의로 환신시켜 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소양증과 탈모도 방지되는 비누도 개발되어 시험을 끝마쳤습니다.

- 수련장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천의선도 전수도장
- 연락처 : 010-4933-4528
- 1차 : 11월 13일 오후 1시 개강 - 16일 12시 수료식
- 2차 : 한국 땅에서 마지막 강의 - 11월 20일 1시 개강 11월 23일 12시 수료식
- 전수비 + 환신비 + 교재비 : 150만원
- 내선침 값 500개 : 50만원
- 저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00년 사상의학 팔상체질 분류비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나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